

中道와 中庸

金海潤

緒 言

吾人이宇宙의森羅萬象을觀察할때에 類似同一한現象도많이있으며 分別差異함도얼마던지認得할수있는거와같이 世界上百敎千宗과萬般學說에잇어서도 서로相違된點도不少할것이며 彼此共通된點도許多할 것이다.

예수敎外의眞理를否認하며 一般科學을反對하던歐州人들은 예수敎外에도眞理가있고 學理가있음을깨달은지오래이다. 덮어노코自來舊慣인東洋文化에는背恩忘德하고 얼■하여도好奇心으로西洋것에垂涎三尺하든우리들(東洋人)도 爛漫한薔薇花같은저들의物質文明 高운花■사이로숨어넘바다보는荊棘이 不知中精神界에毒惡한注射로化行함을알었으며 白蓮花같이도 우리의精神文化는汚穢濁洗인現今의娑婆에도 亭亭獨立한雅態의眞光을빛어춤을觀察하였다. 自己가儒者이라고 佛者 老者를餘地없이攻擊하던韓退之의「原道論」은 넘어나消極的옛말이오 近日멋모르는「막쓰」徒가 一片의管見으로 함부로宗敎를排斥함은 오늘날奇怪相의하나이다.

佛徒들아! 儒者들아! 「크리스찬」이여! 「막시스트」여! 서로短을말하고 長을부르지즘보담 東西가 서로門을열어노코 南北이互相折衝하야무엇에던지 人我相을超越한그곳에라야 眞理의曙光이빛어줄 것이다. 未開幼稚한 反目嫉視는그만두고 加減乘除의運■를잘하자. 千里보담 멀고또먼人生의險路라하여도 中庸의步調만取하면 「에덴」과「과라다이쓰」에 到達할것이며 數學的加減乘除의고개를超越하야넓고도깊은 眞理의바다에들어가든이라도 中道の 般若龍船만 順風調御하면天堂과極樂이 곳거게일 것이다

中道는 根本佛敎로붙어 其後發達된佛敎各種에이르기까지 共通된精神으로써 넓이一般佛敎의敎理目標가되여있으며 적어도 佛敎實踐門의 必要한規矩가되여있다. 中庸은佛敎에 있어서上自堯舜愚湯文武周公으로 孔子以後著名儒들의 一貫紹述하는儒敎思想의中樞가되여있다. 中庸이意義解釋에는 學者의 다음을말아 그定義의範圍 各各달으지마는 나는당돌히 우리말로하자면 「마즌것」

또는 「알마즌것」即事理에 넘고 처짐이 없는 것이 適合할 줄 생각한다. 그런데 이 中庸에서 一層 나아가 佛敎의 加味를 한 것이 中庸이다.

中道와 中庸의 本■이 어느 때 어떤 곳에서든지 調和性 妥當性을 保存自擔하고 있는 이만큼 現今우리 人類社會에 있어서도 千技의 學說 萬流의 思潮一紛紛하지 마는 모도가 中道의 大氣海에 潛浮呼吸할 것이며 中庸의 眞法軌를 踏襲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 何故■하면 「막쓰」學說에는 「막쓰」學說 自體의 中庸이 昭昭히 辯證하고 있으며 예수敎理에는 예수敎理 其中에서 中道의 氣分을 如實히■ 할 수 있다. 모든 萬象이 中道的으로 建立되어 있고 中庸的으로 움직인다. 이리 함으로 中道와 中庸이 어느 때 어떤 곳에서든지 조화성을 가진 것이며 또 필요적 절한 것이다. 개인의 수신에도 사회의 단결에도 교육에도 정치에도 경제에도 어떠한 方面에도 불가결의 고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제 고래 문헌을 고증하여 中道와 中용에 대한 제학설을 순차서술하며 더욱 서양의 중사상을 대조 첨가하여 유불의 차이점과 동서의 중사상을 천명하고자 한다.

본 론

일, 중 도

이 중도라는 말은 유교서적에서도 수처에 찾을 수 있으나 언제든지 중용과 동의어로 해석하였고 향다반이 불교삼장에 곧곧이 써서 있는바 종파의 다름을 말아 각각 특수처를 가지고 있으며 견지와 해석이 조금식달이다. 다음에 불교제의 중도설을 열거 소개코저 한다.

(1) 소승의 중도설. 중아함■■경에 알

오비구당지 유변행 계위도자 소불당학 일왈착육 ■하천업 범인소행 이왈자 변자고 정현성구법 무의상응 오비구 사차이변 유취중도 성안성지 성취어정 이득자재 취지 취각 취어열반 ■입정도

이와같이 팔정도를 중도로 보았다. 팔정도는 즉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의 여덟가지로써 불교열반문에 들어가는 수행하는 방법이다. 이 업고신으로 불경계에 들어가는 데는 이 팔정도 즉 정견으로 불어 내지 정정의 길을 밟아가는 것이 오즉참되고 바른 길이라는 것이다 동양으로 팔정도를 중도로 본 것은 「전법륜경」 「과거현재인과경권삼」 「중허마하제■권칠」 「중본기경권상」 「불본행집경권삼십사」 「중아함권사십삼」(■■■■무쟁경)등에도 있으며 특히 사분울권삼십이와 오분울권십오에는 팔정도를 중도라하고 또 경히사제 중도제가 중도라 하였다. 도제를 조금 상세개안한 것이 팔정도이니 도제를 중도로 보거나 팔정도를 중도로 보거나 그다지 내용상 상거는 없을 것이다. 또 ■아함경 권십이에는

「원리단상이견 정관십이인연료해 즉입중도」

라하였는바 십이인연이라함은 무명, 행, 식, 명색, 육입,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등인바 무명이 시초가되야 순차로십이인연의 노사까지이러남을 내관하는 것을 십이인연의순관이라하고 무명의멸함으로인하여 순차로십이인연의노사까지멸진하여짐을 내관하는 것을 십이인연의역관이라한다. 부처님께서도 성도하실때나 오도하신뒤이나 이십이인연법을 순관하시고 또역관사셨다 하는만큼 존중한 것이다. 그러함으로 단견과 상견의양편견을떠나 불타성도의 내용인 십이인연을 정관료해하는 것이 곳중도이라하였다. 그러한바우리는 여계서 하나알어둘 것은 전자즉 팔정도를중도하함에는 수행방면에 중목표를둔 것이며 후자즉 십이인연관을중도라함에는 법리방면에요주의를한 것이다.

소승경전의설은 이상과 같거니와 소승논부의중도설을 감간소개하면 팔정도를 중도로본곳은 없다 다만 단상이견을떠나 비단비상의리를 중도로본곳은 있나니 즉 「대비과사론권팔」에는

「단상괴중 구명위변」

이라하였으며사「구론광기권십구」에는 변집견을 석해하여왈

「혹집위단 혹집위상 괴중도비단상지리」

라하고「성실론권이 일체유무품」에는

「유인 설일체법유 혹설일체법무...(중략)...약결정유즉타상변 무즉타반변 이차이변 명위중도」

라하였다. 여사히 소승론부에서 팔정도를 중도로 본곳이 태무함은 스승론가는 대개중도를 삼십칠조■품의 일로서 사제중 도제의 일분장에 불과하다고 간주한것같다.

(2) 법상종의중도설

본종의 중도설을말함에는 삼시교판의 이약이로시작함이 가장적의할뜻하다 이삼시교판이라함은 법상종의 소의경전인 해심밀경에 있는것이니 석종의일대설법을 삼기로분하여 천박한교리로붙여 점차심오한지경에 이르렀다함이다. 삼시라함은 초, 석, 금삼시로써 제일시(초)유교, 제이시(석)공교 제삼시(금)중도교시를 지시함이다.

제일시유교라함은 석존에서 성도직후 몽매한 외도와 범부들이 우주간 아(Atman)라는 실체가있다고 집착하여서 진실한보체를 얻지못함을가련히생각하시와 녹야원에서 하근기류를위하사 아함경을설하야 아공법유의리를 증득케함시오. 제이시공교라함은 제일시에서 아공법유의진의를망謫하야 제법실유의 집견을가지고있는 중근이승을위하야 석존께서 영취산에서 반야경등을 설하사 아법구공의리를교시하였으며.

제삼시중도교라함은 제이시에 제법개공이라하였으나 중도묘언은아니오 유인방편에불과함이니 비유비공 진공묘유의 진법리는 이제삼시에 있나니즉 해심밀경의 유■중도교라한 것이다.

또본종에서는 제법의 본체와현상의 진공분별을설명함에 삼성을새워서 공경진여의공덕을 말하여 중도라하였다. 삼성이라함은

제일에■계소집성이니 환상착각으로 실무함을 실유하다고하는것이니 승을 견하고 사로인하는거와같은것이라 일변의망집소치이며

제이에 의타기성이니 실무한체상에 인연화합으로가상을 표현함이다 승은 사가아니지마는 인연화합으로 잠시간 사로■정케되엇는거와같으며

제삼에원성실성이니 진지는 불생불멸상주무위하여 일체의공덕을구비하여 원만성취진실함으로 원성실성이라하나니 원은 사람이■로써 ■작한인연소생으로 형을떨아승이라명하나 실체는■이다

이상의삼성은 일법체우에있는삼성이

오 별체에각립함은아니니 즉진실여상한 즉 원성실성으로붙어 인연소생의 의타기성의가유가좌하며 가유가있음으로붙어 망계의 ■계소집성이출하나니라.

그런데 ■계는망계임으로공이오 의타는인연화합임으로가유이며 원성실성은진유이다. 이삼성의 소위공 가유 진유라함은 우에말함과같이 진여일법체로나온 것이다. 그럼으로 일체상에서 공과유의규각을 생할리없다. 고로 이공이니 유이니함은 비유비공의중도이다. 이것이 이른바 유명한「삼성대■중도」라는 것으로 법상종의진여즉중도라함이다. (■■■■)